

매튜 S. 하몬 박사, 성경의 활용, 제4강, 사례 연구: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난 이사야 49장.

테드 힐데브란트가 BiblicaleLearning.org를 후원합니다.

,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성경을 성경에 적용하는 방법'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이사야 49장을 살펴보는 사례 연구입니다. '

성경을 성경에 적용하는 방법' 강좌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사야 49장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성경 연구 방법: 구약과 신약을 위한 일곱 가지 해석학적 선택』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이사야 49장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 책의 한 장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오늘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8절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또 다른 사례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사야 49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샅샅이 조사하고 모든 단서를 파헤치는 심층적인 학문적 접근 방식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방식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어 성경 번역본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암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암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더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참고 자료로 최근에 출간된 『Connecting Scripture New Testament』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Christian Standard Bible』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기능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구는 많은 암시들을 아주 잘 찾아줍니다. 따라서 암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인할 때, 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암시를 발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상호 참조 도구를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중 하나는 원문과 수용문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 이것이 수용문 이고 ,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의 이 구절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암시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사야 49장과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사이의 접점을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옆 괄호 안에 LXX AT [저자 번역]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LXX는 70인역 성경을 의미하고, AT는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역은 제가 직접 번역한 그리스어 70인역 성경 본문이며, 바울은 70인역에서 이사야 49장의 표현을 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갈라디아서 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라들아, 귀 기울이라 .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것이 설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갈라디아서 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 동일한 동사 "부르셨다"는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단검처럼 만드시고 그의 손 아래 나를 숨기셨다."

그분은 나를 택하신 화살처럼 만드시고, 화살통 에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내 힘을 헛되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주님께 있고, 나의 수고는 나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태중에서부터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지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모으시려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여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이라 불리는 것은 너에게 큰 축복이다. 이는 네가 야곱의 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제가 이 색깔들을 통해 보여드리려는 것은 이 두 본문 사이에 공통된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수평적, 수직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주변 구절, 단락, 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서 나타내셨다고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보통 “그의 아들을 내게 나타내셨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내 안에서’로 번역하는 이유는 그리스어 원문이 ‘내게’보다는 ‘내 안에서’로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표현은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서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 그의 사역, 즉 바울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계시하실 예정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사야 4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 꽤 억지스러운 연결고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안에’로 번역된 전치사는 꽤 흔하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후 자신의 명성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야기하면서, 유대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결론짓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해도 의미가 통하지만, 원문인 그리스어 본문이 강조하려는 바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이사야 49장 3절에 나오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점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신 맥락이 바로 자신의 삶과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49장에서 그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몇 가지 추가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1장 1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 내가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니까? 만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 둘로스’ 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노예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종에게 “너는 나의 종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처럼 ‘ 둘로스 (doulos)’ 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종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그리스어 단어인 ‘피페스 (pipes)’ 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역시 종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사야서 53장 등 다른 곳에서도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칠십인역은 ‘둘로스’ 대신 ‘피페스’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사야서에서 ‘둘로스’가 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10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그는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두 번이나 헛되이 달리거나 수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49장 4절에 나오는 종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힘을 헛되이, 아무 소용없이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글쎄, 이게 정말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같은 본문과 여러 다른 연결고리들과 함께 제시될 때, 이사야 49장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더 큰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른 연결점을 살펴보면,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49장 6절에서 종은 자신이 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방’ 또는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번역자는 이 문맥에서 ‘열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이방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결정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그리스어 원문은 동일합니다.

자, 이로써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49장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1단계는 암시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원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본문 이형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49장에서 히브리어 원문과 70인역 성경의 정확한 원어 표현에 대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70인역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 모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에서 얻은 통찰을 탐구하고 요약한 다음, 수용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원문을 사용하는 다른 텍스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사야 49장의 암시에 영향을 미치는 본문 이형은 없으므로 다행히도 그 부분을 자세히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직접 분석할 수 있다면 넷바이블(Net Bible)의 주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성경에는 본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대한 주석이 있어서, 영어 성경 독자라 할지라도 본문 변형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평적

맥락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내에서의 수평적 맥락은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부분을 대신하여 순종할 한 개인 종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 49장 1-6절을 읽었지만, 이사야 42장 1-6절은 이사야 49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으니, 그는 만국에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서 떠들지도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리라. 그는 성실히 정의를 행하시리라. 땅 위에 정의를 세우시고 해안 지역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게 하실 때까지 그는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펼치셨으며,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이다. 내가 너희를 의로 붙렸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지켜 주겠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만국의 빛으로 주겠다. 이 구절을 읽고, 특히 신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아, 이걸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인용하며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이걸 메시아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2장을 계속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귀머거리야 들으라. 눈먼 자들아,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느냐? 내가 보낸 사자 외에 누가 귀먹었느냐? 내게 헌신한 자 외에 누가 눈멀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종 외에 누가 눈멀었느냐?” 어휴.

저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 42장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종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잠깐만요, 그럼 마태는 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걸까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마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종으로, 예수님을 궁극적인 종으로 상징하는 모형적 연결고리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 해야 하며, 마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연결점을 통해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사야 42장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되어야 했지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들은 이사야 4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종으로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나중에 나타날 한 개인 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은, 꼭 제 해석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 즉 이스라엘은 실패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에서 순종할 한 개인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정당성을 입증받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 50장과 52장, 53장에서 다시 한번 다뤄집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수평적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적 맥락은 어떨까요? 개념적으로, 수직적 맥락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적, 제사장적, 예언적 역할을 가진 일련의 개인 종들을 세우셔서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는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담,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지속적인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 '종'이라는 용어가 항상 단수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 즉 집단을 가리킬 때에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4장에 이르러서야 개개인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에는 이것이 여호와와 종들의 유산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복수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개개인의 종이 이루어낸 사역이 이제 종들의 백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 1장 5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슷한 표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1장의 맥락에서 이사야 49장을 떠올리게 하는 다른 암시와 유사점들이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사야의 표현을 차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사야 49장을 분명하게 인용한 사례가 있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거부했으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생을 얻도록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사야 49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통해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설명한 선례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러한 점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첫 두 단계입니다. 오류를 파악하고, 출처 본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용 본문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 1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즉, 본문을 분석하고 이본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맥, 즉 수평적 맥락과 수직적 맥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문 측면에서 볼 때, 이 착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이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몇 가지 이본이 있지만, 이는 착시 현상의 존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평적 맥락은 어떨까요? 주변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와의 관계를 변호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변 맥락에서 이사야 49장을 암시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암시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하박국 2장 3절에 대한 암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나오는 이사야 49장 3절에 대한 암시는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암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아직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구절이 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려는 목적을 보았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사야 49장 3절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육신으로 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제가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구절이 이사야 53장에서 종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 순종하는 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예수님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보면서 ‘이것은 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약간의 혼란이 생겨서, ‘잠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울은 이사야 49장의 종이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종이라니.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해답을 찾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 49장의 종이라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 49장에서 말하는 약속된 종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안에 거하셔서 만국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사야 49장 3절과 53장을 언급하며 이를 연결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제가 이미 너무 앞서나가서 흥분했지만, 해석학적 결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수용 본문,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공 본문을 통해 어떤 해석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학적 결론, 즉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 책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하는 법』 69쪽부터 72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12가지 정도의 해석적 결과 목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대 성경 저자들이 초기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사야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바울이 이사야서를 사용한 방식은 간접적인 성취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종의 소명을 구체적인 표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예표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 묵상하면서, 그는 이사야 49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구체적인 구절뿐 아니라, 여호와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의 더 넓은 범위에서 예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아계셔서 그 종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을 이사야 49장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49장을 해석함으로써 바울은 앞서 언급한 개인적 정체성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적 정체성과 책임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종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종들을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사야 49장에서 예언된 인물과 유사하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더 큰 사명을 이루 시기 위함입니다 .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독특한 인물일까요? 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구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만국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도록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저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 방법』 8장 ‘성경 활용법’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otuat.com/7c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추가적인 글과 영상, 인터뷰 등이 있으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하시면 참고하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하고, 앞으로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유용한 도구와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경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 이 글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강의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 여러분이 이전에는 온전히 보지 못했거나 잊고 있었던,

진정으로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튜 S. 하먼 박사이며, 그의 강의 시리즈인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이사야 49장을 살펴보는 사례 연구입니다.